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구주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실 주님을 많이 소망하십시오.
2. 성탄 감사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하신 구주께 큰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예배 헌금은 다니엘 기도회에 소개된 환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사용됩니다).
3. 성탄 축하 전야제가 24일(금) 있습니다.
1부 오후 5시 30분: 저녁식사 (바베큐 - 준비물: 야외용 돗자리, 아채)
오후 6시 45분: 성탄 축하 찬양
2부 오후 7시: 축하 잔치
4. 선교회별 혹은 공동체별로 성탄 전야제에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주 성탄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주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성탄 전야제와 성탄 감사예배로 대신합니다.
6. 예배 후 2021년을 위한 정책회의가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당회원, 안수집사).
7. 2021년 1월 첫 주일(3일)부터 예배 시간을 1부 11시 30분, 2부 오후 2시(찬양예배)로 변경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첫 찬송 다음 '참회의 기도', 교회 소식 다음 '공동 성경 읽기'가 포함됩니다.
8.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021년에 교회 각 부분을 함께 섬길 성도들은 자원해 주십시오(교사, 찬양대,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예배 준비 등).
9. 2021년도 달력(벽걸이, 탁상용)이 준비되었으니 가정당 각각 1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증한 이선주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 청소년,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22일(화)까지 Orere Point에서 있습니다.
11. 화요일 저녁반 성경공부 '풍성한 생명' 수료자 명단입니다.
박병민, 손조훈, 이기중, 임병숙, 현석호
12. 어제 아동부 수련회에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3. 새로 등록한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은희 성도 200 Helenslee Rd, Pokeno 2여성교회 021-518-12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2월 교회사역일지

12월 6일 (주일)
대림절 2
12월 7일 (월)
오찬집 모임
12월 24일 (목)
성탄 전야제
12월 25일 (금)
성탄 감사 예배
12월 27일 (주일)
송년주일
12월 31일 (목)
송구영신 예배

12월 기도 순서

12월 27일 (주일)
박병민 장로
12월 31일 (목)
현석호 장로
1월 3 (주일)
손조훈 집사
1월 6일 (수)
가정예배

12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최희숙, 박병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51호

2020.12.20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배 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금요일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 찬송	-----	다함께
✧ 신앙고백	-----	다함께
찬송	-----	다함께
대표기도	-----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	인도자
찬양대찬양	-----	다함께
설교	-----	이태한 목사
찬송	-----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철
부 목사 이성훈

청년예배

금주기도
황보준호 형제
다음주일
이예찬 형제

수요일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목요일(24일) 저녁의 성탄 전야제로 대신합니다.

기도
12월 25일 장경희 집사
12월 31일 현석호 장로

선교란

이번 주는 아프리카 차드 양승훈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들에게

한 해 동안 온 세계를 아프게 휘감은 COVID-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이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변화와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답답함 앞에서 무기력함에 짓눌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늘을 견디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한 해의 말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셨을 터인데 2020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며 몇 가지 소식 전합니다.

신학교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 차드 코로나 전염병 비상 상황의 제약으로 연기되었던 신학교 졸업식(6명)과 목사 안수식(3명)이 여러 일상생활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지난 11월 28일 토요일에 암바타센터 교회(EEMT5)에서 은혜롭게 거행되었습니다. 인원을 제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하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자세의 겸손한 마음, 배움의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인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선한 사람, 신실한 신자, 충실한 학자, 본받을 만한 인격자 되어서 모범적인 목회자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갑작스런 홍수와 가난한 이들: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수도 은자메나 주변에서 약 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난 후 지난 10월 말에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은 중앙아프리카와 카메룬에서 밀려온 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EEMT8 교회가 있는 투크라 지역에 약 1000가정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임시 숙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도 하는 어려움 가운데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의 손길로 멤버들 18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근방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와서 일교차 20도 이상의 힘든 기후를 맞게 됩니다.

다른 사역들과 예정된 사역들: 11월부터 어린아이들 방과 후 토요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아이들이 복음 축복 목걸이를 열심히 만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아이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루터기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1월에는 두란노 선교 훈련원에서 성경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선교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긴급한 사역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차드에 약 50여 종족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잘 훈련되어 그들의 나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과 미전도 마을을 복음화하는 능력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2월에는 베베자 지역에서 현지인 교회들과 리더들을 대상으로 말씀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현지 교회를 깨우고 그들을 세우는 길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차드에서 양승훈 드립니다.

나눔란

2020년 12월 1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8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8). 그럼 우리 마음이 청결한지, 또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사전적 뜻은 인간이 본래 지닌 품성, 성격, 감정, 생각, 의지, 기억 등이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지성, 의지, 감정 즉 전인격적으로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이 머무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에 반하는 악한 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명상, 요가로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스님은 죽기 바로 전에 자기의 죄가 너무나 많아 지옥에 간다는 유언을 남겨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마 15:16-20).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해결 받을 수 있을까요?

1)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요일 1:5). 죄사함을 받고 또 넘어진다 해도 또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마 6:22-23).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비취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두움을 깨닫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3)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갈 5:22-26)는 마음의 질병인 우리 내면의 상처와 어두움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해야 맺어지며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청결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도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참 소망과 기쁨을 갖고 나가는 갈보리 교회 온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누가복음 2: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